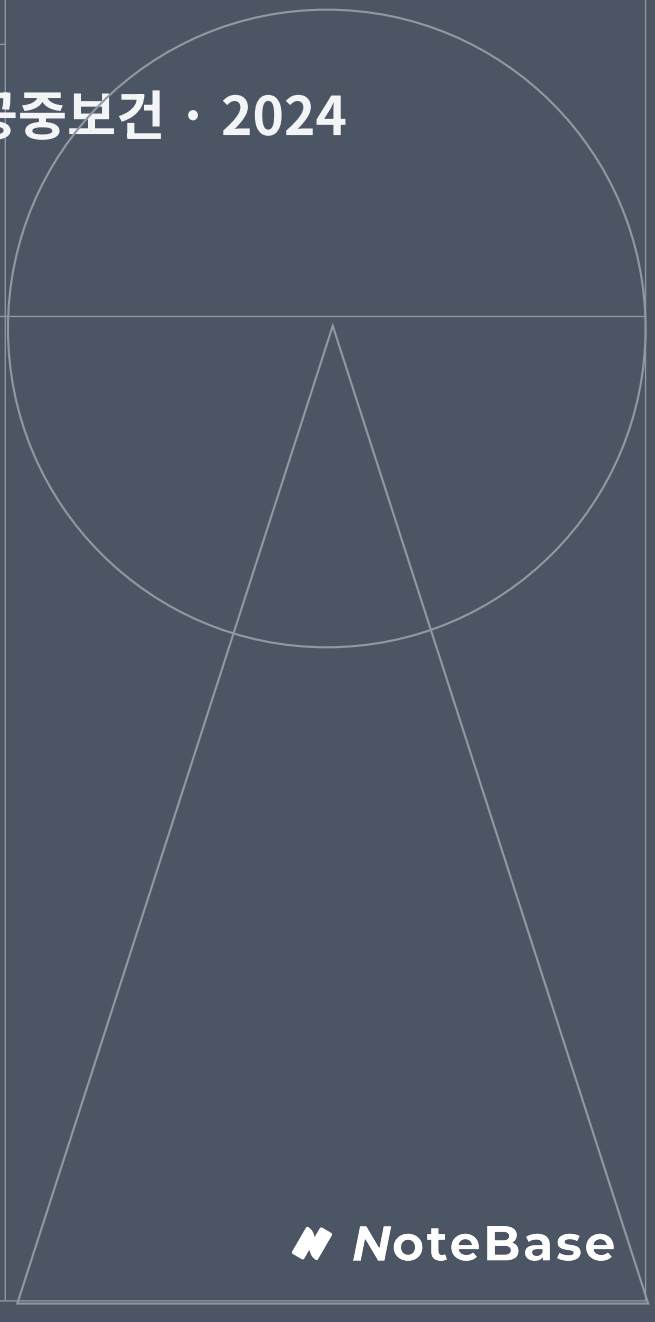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4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4

1.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동·식물과 그 원인 독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굴 – 무스카린(muscarine)
② 버섯 – 솔라닌(solanine)
③ 감자 – 아플라톡신(aflatoxin)
④ 청매 – 아미그달린(amygdalin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을 일으키는 식품·생물과 대표 독소의 올바른 대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스카린은 독버섯과 관련된 독소이고, 솔라닌은 감자에서 문제 되는 독소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이며, 아미그달린은 청매 등 핵과류의 씨와 덜 익은 열매에 존재하는 청산배당체이다.
대표 대응은 독버섯-무스카린, 감자-솔라닌, 곰팡이-아플라톡신, 청매-아미그달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굴-무스카린'의 연결이 틀렸다. 무스카린은 굴이 아니라 독버섯과 관련된 독소이므로 '독버섯-무스카린'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버섯-솔라닌'의 연결이 틀렸다. 솔라닌은 버섯이 아니라 감자, 특히 싹이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많이 존재하므로 '감자-솔라닌'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감자-아플라톡신'의 연결이 틀렸다. 아플라톡신은 감자의 고유 자연독이 아니라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이므로 '곰팡이-아플라톡신'으로 고쳐야 한다. 감자의 대표 독소는 솔라닌이다.
④ O — 청매에는 아미그달린이 존재하며, 이것이 분해되면 시안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청매-아미그달린'은 올바른 연결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에는 실제 독소 이름을 두고 발생 식품만 서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②의 솔라닌과 ③의 아플라톡신을 각각 버섯·감자와 연결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독소를 대표 발생원과 한 쌍으로 대응한다. 무스카린은 독버섯, 솔라닌은 감자,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아미그달린은 청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버섯-무스카린, 감자-솔라닌, 곰팡이-아플라톡신, 청매-아미그달린이다.

NoteBase

2. 고든(J. Gordon)과 클라크(F. G. Clark)가 제시한 질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원체 요인은 질병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② 환경 요인이 병원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숙주의 감수성이 감소된다.
③ 숙주 요인이 우세하거나 환경 요인이 숙주에 유리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④ 환경 요인은 숙주와 병원체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며 건강과 질병에 중요한 요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든과 클라크의 질병 발생 모형에서 병원체·숙주·환경의 상호관계와 환경의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모형은 건강과 질병이 병원체 요인과 숙주 요인의 균형 및 이를 조절하는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병원체는 질병 발생에 직접 작용하고, 숙주는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나 저항성을 가지며, 환경은 두 요인 사이의 균형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균형이 병원체 쪽으로 기울면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숙주 쪽으로 기울면 건강이 유지되거나 증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병원체 요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요인으로서 질병 발생에 직접 작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숙주의 감수성이 감소된다'이다. 환경이 병원체의 생존·증식·전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균형은 질병 발생 쪽으로 기울며,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 숙주의 저항성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면 균형이 건강 쪽으로 기울어 건강이 유지되거나 증진된다.
④ O — 환경 요인은 병원체와 숙주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므로 건강과 질병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환경이 병원체에게 유리하다'는 조건과 '숙주의 감수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병원체에게 유리한 환경은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쪽으로 균형을 기울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병원체에 유리한 조건은 질병 발생 쪽, 숙주에 유리한 조건은 건강 쪽으로 균형을 이동시킨다고 판단한다. 환경은 병원체와 숙주 사이에서 그 균형을 조절하는 지렛대이다.

암기 포인트

병원체 우세는 질병, 숙주 우세는 건강, 환경은 균형을 움직이는 지렛대이다.

NoteBase

3.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지표 중 비례사망지수(proportional mortality indicator, PM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 사망 중 특정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비례사망지수가 높을수록 장수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로 표현되며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하다.

④ 비례사망지수가 높을수록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례사망지수(PMI)의 산출 기준과 지수가 높을 때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례사망지수(PMI)는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PMI=50세 이상 사망자 수전체 사망자 수×100으로 나타낸다. PMI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 장수인구가 많고 보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비례사망률은 전체 사망 중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의 비율이고, 조사망률은 일정 기간의 총사망자 수를 인구 규모로 나눈 지표이므로 PMI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총 사망 중 특정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례사망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PMI는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② O — PMI가 높을수록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의 비중이 크므로 장수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X — '당해 연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조사망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PMI는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로 표현되며, 인구 1,000명당 수치가 아니다.
④ X —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적다'는 해석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PMI가 높을수록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특정 원인', ③의 '인구 1,000명당'은 각각 비례사망률과 조사망률의 기준이다. PMI의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전체 사망자이고, 분자는 특정 원인 사망자가 아니라 50세 이상 사망자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표의 분자와 분모를 먼저 확인한다. '50세 이상 사망자/전체 사망자'이면 PMI, '특정 원인 사망자/전체 사망자'이면 비례사망률, '총사망자/인구'이면 조사망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PMI는 '사망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며, 높을수록 장수 수준이 높다.

NoteBase

4. <보기>의 공중보건 발전과정을 역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레벤후크(A. V. Leeuwenhoek)의 현미경 발명으로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ㄴ. 영국의 존 스노(John Snow)가 '콜레라에 관한 역학 조사 보고서'로 감염병 발생설을 입증하였다.
ㄷ.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족되었다.
ㄹ.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인체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4가지 체액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ㄴ - ㄱ -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중보건 발전사의 주요 인물과 기관을 고대, 17세기, 19세기, 20세기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ㄹ 히포크라테스 — 고대 그리스에서 혈액·점액·황담즙·흑담즙의 4체액설을 주장하였다.
2. ㄱ 레벤후크 — 17세기에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관찰하였다.
3. ㄴ 존 스노 — 19세기 중엽 콜레라의 발생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였다.
4. ㄷ 세계보건기구(WHO)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에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해 발족하였다.

왜 이 순서: 고대의 질병관에서 출발하여 현미경에 의한 미생물 관찰, 근대 역학조사, 국제 보건기구의 출범 순으로 이어지므로 ㄹ-ㄱ-ㄴ-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ㄹ보다 앞에 둔 것이 틀렸다.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은 고대의 이론이고, 레벤후크의 미생물 관찰은 17세기의 일이다. 올바르게는 ㄹ-ㄱ-ㄴ-ㄷ이다.

② X — ㄱ을 맨 앞에 두고 WHO의 발족인 ㄷ을 존 스노의 역학조사인 ㄴ보다 앞에 둔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고대의 ㄹ, 17세기의 ㄱ, 19세기의 ㄴ, 20세기의 ㄷ 순이다.

③ O — ㄹ(고대 히포크라테스) → ㄱ(17세기 레벤후크) → ㄴ(19세기 존 스노) → ㄷ(20세기 WHO)의 역사적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ㄴ을 ㄱ보다 앞에 둔 것이 틀렸다. 레벤후크의 미생물 관찰이 17세기이고 존 스노의 콜레라 역학조사가 19세기이므로, 올바르게는 ㄹ-ㄱ-ㄴ-ㄷ이다.

오답 포인트

레벤후크의 미생물 관찰과 존 스노의 콜레라 역학조사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 미생물을 관찰한 17세기의 레벤후크가 19세기의 존 스노보다 먼저이며, 국제기구인 WHO의 발족은 네 사건 중 가장 나중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과 기관을 먼저 시대 표지로 바꾼다. 고대의 히포크라테스 → 17세기의 레벤후크 → 19세기의 존 스노 → 20세기의 WHO 순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히-레-스-세: 히포크라테스 → 레벤후크 → 스노 → 세계보건기구 순이다.

NoteBase

5.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병의 예방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현재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위험 요인 감소나 건강 관련 위험 행위를 줄이는 예방법이다.
- 해당 활동으로는 예방접종, 보건교육, 개인 청결 유지가 있다.

① 1차 예방 ② 2차 예방
③ 3차 예방 ④ 질병 치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증진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활동이 몇 차 예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차 예방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증진과 질병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이다. 예방접종, 보건교육, 개인 청결은 대표적인 1차 예방 활동이다.
2차 예방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단계이고, 3차 예방은 질병 발생 후 장애를 줄이고 재활을 돕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현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험 행동을 줄이며, 예방접종·보건교육·개인 청결을 시행하는 것은 질병 발생 전의 1차 예방이다.
② X — 2차 예방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2차 예방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이며, 제시된 활동은 1차 예방이다.
③ X — 3차 예방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3차 예방은 질병 발생 후 장애의 악화를 막고 기능 회복과 재활을 돕는 것이며, 제시된 활동은 1차 예방이다.
④ X — 질병 치료라는 표현은 제시된 예방단계의 명칭이 아니다. 제시된 내용은 질병 발생 전의 1차 예방이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강조한다면 2차 예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2차 예방이나 질병 치료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예방단계는 시행 장소가 아니라 질병 발생 전인지, 조기 발견 단계인지, 질병 발생 후 재활 단계인지로 구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병 발생 전의 건강증진·예방접종·위험 요인 감소는 1차, 조기 발견·조기 치료는 2차, 장애 제한·재활은 3차 예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생 전 1차, 조기 발견 2차, 장애 제한과 재활 3차이다.

NoteBase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① A형간염, B형간염, E형간염
② B형간염, C형간염, E형간염
③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④ C형간염, E형간염, 인플루엔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계속 감시가 필요하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감염병이 제3급감염병임을 파악한 뒤, 각 감염병의 급수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핵심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B형간염, C형간염, 매독은 제3급감염병이다. 반면 A형간염과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고, 페스트는 제1급감염병이며,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이다. 제2급과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지만,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추가되고 제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B형간염은 제3급감염병이지만 A형간염과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틀린 표현: A형간염, B형간염, E형간염이 모두 <보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이 중 B형간염만 제3급감염병이고, A형간염과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② X
B형간염과 C형간염은 제3급감염병이지만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틀린 표현: E형간염이 <보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③ O
B형간염, C형간염, 매독은 모두 제3급감염병이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④ X
C형간염은 제3급감염병이지만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고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이다.
틀린 표현: E형간염과 인플루엔자가 <보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고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이다.

오답 포인트

제2급과 제3급이 모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보기>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라는 문구를 통해 제3급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또한 간염은 알파벳이 다르면 급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A형·E형은 제2급, B형·C형은 제3급으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의 핵심어로 급수를 먼저 정한다. '즉시 신고·높은 수준의 격리'는 제1급, '24시간 이내 신고·격리 필요'는 제2급, '계속 감시·24시간 이내 신고'는 제3급, '표본감시'는 제4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간염은 A·E가 2급, B·C가 3급이며, 매독도 3급이다.

NoteBase

7.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홍역, 폴리오, 결핵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이다.

② 호흡기 계통으로 병원체가 탈출하는 감염병은 발진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가 있다.

③ 자연능동면역은 인위적으로 항원을 체내에 투여해서 면역력을 얻는 방법으로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등이 있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디프테리아는 발생 즉시, 콜레라는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병원체·전파경로·면역의 획득 방식과 법정감염병의 신고기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질병별 병원체와 탈출·침입 경로를 정확히 연결하고, 자연능동면역과 인공면역을 구분하며, 감염병의 급별 신고기한을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연능동면역은 실제 감염을 겪은 뒤 자기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여 얻는 면역이다. 인공능동면역은 백신처럼 항원을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얻고, 인공수동면역은 감마글로불린이나 항독소처럼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하여 얻는다.

핵심 구분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이고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이므로 두 질병의 신고기한은 각각 즉시와 24시간 이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홍역과 폴리오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지만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인 결핵균이다.
틀린 표현: 홍역, 폴리오, 결핵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이다.
올바른 표현: 홍역과 폴리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고, 결핵은 세균성 감염병이다.

② X
발진열과 말라리아는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고, 파라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 오염된 물·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므로 호흡기계통으로 병원체가 탈출하는 감염병의 예가 아니다.
틀린 표현: 발진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는 호흡기계통으로 병원체가 탈출한다.
올바른 표현: 발진열과 말라리아는 매개곤충과 관련된 감염병이고, 파라티푸스는 소화기계통으로 병원체가 탈출하는 감염병이다.

③ X
항원을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자신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인공능동면역이며, 감마글로불린과 항독소는 이미 형성된 항체를 투여하는 인공수동면역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자연능동면역은 항원을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며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등이 있다.
올바른 표현: 자연능동면역은 자연감염 후 획득하며, 백신 접종은 인공능동면역, 감마글로불린·항독소 투여는 인공수동면역이다.

④ O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인 디프테리아는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자연·인공과 능동·수동이라는 두 구분축을 섞기 쉽고, ④에서는 디프테리아와 콜레라를 같은 신고기한으로 오인하기 쉽다. 자연감염인지 인위적 투여인지와, 몸이 항체를 직접 만드는지 완성된 항체를 받는지를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염병 선지는 병원체, 탈출·침입 경로, 면역 획득 방식, 법정 신고기한을 서로 분리하여 확인한다. 면역은 자연·인공을 먼저 나누고 능동·수동을 다시 나누며, 신고기한은 제1급은 즉시, 제2급은 24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디프테리아는 1급·즉시, 콜레라는 2급·24시간 이내이다. 감염 후 스스로 만들면 자연능동, 백신은 인공능동, 항체를 바로 받으면 인공수동이다.

NoteBase

8. 「표준예방접종일정표」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권장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두는 생후 12~15개월에 접종한다.
② B형간염은 생후 1개월 내에 3차 접종한다.
③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만 4~6세에 3차 접종한다.
④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MMR) 혼합백신은 만 4~6세에 1차 접종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예방접종의 표준 접종 시기와 차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백신별 영아기 기초접종과 유아기 추가접종 시기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표준예방접종일정은 감염병별 백신을 어느 연령에 몇 차례 접종하는지 정리한 권장 일정이다.

핵심 구분

수두는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한다. B형간염 단독백신은 출생 시, 생후 1개월, 생후 6개월에 접종하며, Hib는 생후 2개월·4개월·6개월에 기초접종하고 생후 12~15개월에 추가접종한다. MMR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접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므로 옳다.
② X — B형간염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생후 6개월에 한다. 틀린 표현: '생후 1개월 내에 3차 접종한다.' 올바른 표현: '출생 시 1차, 생후 1개월에 2차, 생후 6개월에 3차 접종한다.'
③ X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백신의 3차 기초접종은 만 4~6세가 아니라 생후 6개월에 한다. 틀린 표현: '만 4~6세에 3차 접종한다.' 올바른 표현: '생후 2개월에 1차, 4개월에 2차, 6개월에 3차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2~15개월에 추가접종한다.'
④ X — MMR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하고 만 4~6세에 2차 접종한다. 틀린 표현: '만 4~6세에 1차 접종한다.' 올바른 표현: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접종한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만 4~6세'라는 같은 연령을 제시하지만 차수와 백신을 바꾼 함정이다. 만 4~6세는 MMR 2차 시기이며, Hib 3차는 생후 6개월이다. 또한 ②는 B형간염의 생후 1개월 접종을 2차가 아닌 3차로 바꾸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신마다 '감염병명-접종 연령-차수'를 한 묶음으로 확인한다. 특히 생후 6개월의 기초접종과 만 4~6세의 추가접종·2차 접종을 구분하면 차수 바꾸기 선지를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두는 12~15개월 1회, B형간염은 출생·1개월·6개월, Hib는 2·4·6개월 후 12~15개월 추가, MMR은 12~15개월 1차와 4~6세 2차이다.

NoteBase

9. <보기>에서 설명하는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병원체 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하여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 세균여과막을 통과하므로 여과성 병원체라고도 하며, 살아있는 조직 세포내에서 증식하므로 세포내 병원체라고도 한다. 항생제로 치료하지 못한다.

① 황열, 공수병, B형간염
② 큐열(Q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③ 페스트, 성홍열, 백일해
④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파상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기의 병원체가 바이러스임을 판별하고, 각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고 세균여과막을 통과하며, 살아 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는 절대세포내기생체이다. 세포 구조와 독자적인 대사 체계가 없어 세균을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성 질환과 세균성 질환은 질병의 증상이나 전파 방식이 아니라 원인 병원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공수병은 광견병바이러스, B형간염은 B형간염바이러스가 일으키므로 세 질병이 모두 바이러스성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세 질병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묶은 것이다. Q열은 콕시엘라, 발진열은 리케차, 발진티푸스도 리케차 계열의 세균성 병원체가 일으킨다. 올바르게는 Q열·발진열·발진티푸스는 모두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세균성 질환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세 질병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묶은 것이다. 페스트는 페스트균,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 세균성이질은 이질균이 일으킨다. 올바르게는 페스트·성홍열·세균성이질은 모두 세균성 질환이다.
④ X — 인플루엔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일으키는 세균성 질환이다. 틀린 표현은 '파상풍'이며, 올바르게는 파상풍을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세균성 질환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앞의 두 질병이 모두 바이러스성이어서 함께 제시된 파상풍까지 바이러스성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파상풍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파상풍균과 그 독소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의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과 '항생제로 치료하지 못함'을 확인하면 바이러스로 판정한다. 그다음 각 선지의 질병을 원인 병원체별로 하나씩 대조하여, 세 질병이 모두 바이러스성인 조합만 고른다.

암기 포인트

황열·공수병·B형간염은 바이러스성이고, 파상풍·페스트·성홍열·세균성이질은 세균성이다.

NoteBase

10.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천면역은 종족, 인종, 개인의 차이에 따라 면역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② 자연능동면역은 후천면역이며 질병에 이환된 후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③ 능동면역은 수동면역에 비해 면역 효력이 빨리 나타나지만, 지속시간이 짧다.
④ 인공능동면역은 항원의 자극에 의해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예방접종이 이에 속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면역을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구분하고, 후천면역 중 능동면역의 획득 방식·항체 생성·효력 발현 속도·지속기간을 수동면역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천면역: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비특이적 방어능력으로, 종족·인종·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자연능동면역: 질병에 걸린 뒤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여 얻는 후천면역이다.
인공능동면역: 예방접종처럼 항원을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게 하는 면역이다.
능동면역은 스스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효력 발현은 느리지만 오래 지속되고, 수동면역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받기 때문에 효력은 빠르게 나타나지만 지속기간이 짧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선천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비특이적 방어능력이며, 종족·인종·개인에 따른 차이가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O — 자연능동면역은 감염이나 질병 이환 뒤 자신의 면역반응으로 항체와 면역기억이 형성되는 후천면역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면역 효력이 빨리 나타나지만, 지속시간이 짧다'이다. 실제로 능동면역은 수동면역보다 효력 발현이 느리지만 면역기억이 형성되어 지속기간이 길다. 빠르게 나타나지만 짧게 지속되는 것은 수동면역의 특징이다.
④ O — 인공능동면역은 백신의 항원 자극으로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는 것이며, 예방접종이 대표적인 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제시했다. ‘빠르게 발현·짧게 지속’은 수동면역이고, ‘느리게 발현·길게 지속’은 능동면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항체를 자신의 몸이 직접 만들면 능동면역, 외부에서 완성된 항체를 받으면 수동면역으로 판단한다. 직접 만드는 능동면역은 형성에 시간이 걸리지만 면역기억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항체를 바로 받는 수동면역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능동은 느리고 길게, 수동은 빠르고 짧게이다. 질병 이환은 자연능동, 예방접종은 인공능동이다.

NoteBase

1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른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횟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임산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 임산부라고 가정한다.)

<보기>

㈎ 임신 28주까지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임신 37주 이후

	㈎	㈏	㈐
①	3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②	3주마다 1회	3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③	4주마다 1회	3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④	4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정상 임산부의 임신 주수별 정기 건강진단 실시 간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진단 간격이 4주, 2주, 1주로 짧아진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기 건강진단 실시 간격은 해당 임신 기간에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건강진단을 하는지를 뜻한다. ‘4주마다 1회’는 4주 동안 총 4회라는 뜻이 아니라 4주 간격으로 1회 실시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상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실시한다. 따라서 (가) 4주마다 1회, (나) 2주마다 1회, (다) 1주마다 1회가 옳은 조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나)의 2주마다 1회와 (다)의 1주마다 1회는 맞지만, (가)의 '3주마다 1회'가 틀렸다.
- 틀린 표현: 임신 28주까지 3주마다 1회
- 올바른 표현: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② X
- (가), (나), (다)의 간격이 모두 법정 실시기준과 다르다.
- 틀린 표현: 임신 28주까지 3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3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2주마다 1회
- 올바른 표현: 차례대로 4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③ X
- (가)의 4주마다 1회는 맞지만, (나)의 '3주마다 1회'와 (다)의 '2주마다 1회'가 틀렸다.
- 틀린 표현: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3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2주마다 1회
- 올바른 표현: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④ O
- (가) 4주마다 1회, (나) 2주마다 1회, (다) 1주마다 1회로 세 기간의 실시 간격이 모두 별표 1의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나)와 (다)가 맞아 보이지만 (가)의 '3주마다 1회'가 함정이다. 또한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진단 횟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간격과 횟수를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진단은 더 자주 이루어지므로 간격이 4주에서 2주, 1주로 짧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신 기간을 '28주까지 / 29~36주 / 37주 이후'의 세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의 간격을 '4주 / 2주 / 1주'와 순서대로 대응한다. 선지는 세 값 중 하나만 달라도 전체 조합을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28·36·37의 경계와 4·2·1의 간격으로 기억한다: 28주까지 4주, 29~36주는 2주,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이다.

NoteBase

12. 주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냉방에 따른 실내외의 온도차는 10℃가 적당하다.
② 살균작용, 비타민 D 생성과 관련된 태양광선은 자외선이다.
③ 폐기물 처리법 중 가장 위생적이지만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소각법이다.
④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내 습도는 40~60% 정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주거환경의 건강 조건인 냉방 시 실내외 온도차, 태양광선의 작용, 폐기물 처리, 실내 습도의 적정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강한 주거환경은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피하고, 일조와 환기를 확보하며,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는 환경이다. 냉방 시 실내외 온도차는 일반적으로 약 5°C 안팎이 적절하고, 실내 상대습도는 40~60% 정도가 적절하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과 비타민 D 생성에 관여하며, 소각은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법이지만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실내외의 온도차는 10°C가 적당하다'이다. 온도차가 지나치게 크면 신체의 체온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온도차는 일반적으로 약 5°C 안팎이다.
② O — 자외선은 미생물을 억제하는 살균 작용을 하며,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③ O — 소각법은 폐기물의 부피를 크게 줄이고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어 위생적이지만, 연소 과정에서 매연·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④ O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상대습도는 일반적으로 40~60% 정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0°C를 냉방 효과가 좋은 기준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냉방은 실내를 무조건 낮은 온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내외 온도차를 과도하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거환경 문항에서는 수치와 작용을 따로 확인한다. 냉방 온도차는 약 5°C 안팎, 실내 습도는 40~60%로 판단하고, 자외선은 살균·비타민 D 생성, 소각은 위생적 처리·대기오염 가능으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냉방 온도차 약 5℃, 습도 40~60%, 자외선은 살균·비타민 D, 소각은 위생적이지만 대기오염 가능이다.

NoteBase

13. <보기>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지표는?

<보기>

- 재해에 따른 실제 손해를 나타낸 비율이다.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① 건수율 ② 도수율
③ 발생률 ④ 강도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산업재해 지표의 분자와 분모를 보고 해당 지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식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므로 강도율의 공식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근로손실일수와 연근로시간수
구해야 할 값: 재해에 따른 실제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주의할 조건: 재해 건수가 아니라 근로손실일수를 분자로 사용하고, 연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다.

사용할 공식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1,000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잃은 근로일수를 나타내므로 재해 피해의 심각한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분자가 총근로손실일수인지 확인한다.
2. 분모가 연근로시간수인지 확인한다.
3.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는 식이므로 강도율로 판정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건수율은 재해 건수를 근로자 수로 나누어 근로자 1,000명당 재해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제시식처럼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는 지표가 아니다. 틀린 표현 '건수율'은 '강도율'로 고쳐야 한다.
② X —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000을 곱하여 근로시간 1,000,000시간당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분자가 총근로손실일수인 제시식과 다르다. 틀린 표현 '도수율'은 '강도율'로 고쳐야 한다.
③ X — 발생률은 재해자 수를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낸다. 제시식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근로시간수를 분모로 사용한다. 틀린 표현 '발생률'은 '강도율'로 고쳐야 한다.
④ O — 강도율은 총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으로, 재해에 따른 실제 손해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시식에 정확히 해당한다.
제시된 공식에 해당하는 지표는 강도율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도수율과 강도율은 모두 연근로시간수를 분모로 사용하지만 분자가 다르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로 발생 빈도를,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로 피해의 심각도를 나타낸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분모만 보고 도수율을 고르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업재해 지표는 먼저 분자를 확인한다. 재해 건수이면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 근로손실일수이면 심각도를 나타내는 강도율로 판단한다. 그다음 분모와 곱하는 상수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도수율은 '몇 번 발생했는가', 강도율은 '며칠을 잃었는가'를 나타낸다. 손실일수 ÷ 근로시간 × 1,000은 강도율이다.

NoteBase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법정 감염병의 증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 환자와의 접촉 또는 환자의 분비물로 감염이 된다.
- 「표준예방접종일정표」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1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만 4~6세에 2차 접종을 시행하여 예방할 수 있다.

① 점액성 혈변 ② 콧물
③ 구강점막 코플릭 반점 ④ 결막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기의 감염병이 홍역임을 파악하고,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급성 발열·발진성 감염병이다. 전구기에는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이 나타나며, 구강점막의 코플릭 반점이 특징적이다.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몸통과 팔다리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상 발진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점액성 혈변은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점액성 혈변'이며, 올바르게는 홍역에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코플릭 반점 및 발진 등이 나타난다. 점액과 피가 섞인 변은 이질과 같은 장관 감염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다.
② O — 콧물은 기침·결막염과 함께 홍역 전구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③ O — 구강점막의 코플릭 반점은 홍역의 특징적인 초기 소견이다.
④ O — 결막염은 홍역 전구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예방접종 시기만 보고 질환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감염병이면 모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①의 '점액성 혈변'을 놓치기 쉽다. 홍역은 호흡기 전구 증상과 코플릭 반점, 발진의 조합으로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의 2회 예방접종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홍역을 먼저 연결한다. 이어 기침·콧물·결막염, 코플릭 반점, 발진에 해당하지 않는 소화기 증상을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홍역은 기침·콧물·결막염에 코플릭 반점과 발진이 더해진다.

NoteBase

15. <보기>에서 기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복사열이다.
ㄴ. 열사병의 원인은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이다.
ㄷ. 쾌적기류는 실내에서 0.2~0.3m/sec, 실외에서 1.0m/sec 정도이다.
ㄹ. 불쾌지수가 70≤DI<75일 때 50% 이상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후의 기본 요소, 열사병의 발생 원리, 쾌적기류의 기준, 불쾌지수 구간별 불쾌감 호소 비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기습·기류이며, 복사열을 더하면 온열의 4대 요소가 된다.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이 장애되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이다.
쾌적기류는 실내에서 0.2 ~ 0.3m/sec, 실외에서 약 1.0m/sec이다.
불쾌지수는 $70 \le DI < 75$에서 약 10%, $75 \le DI < 80$에서 50% 이상, DI≥80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ㄱ의 '복사열'은 '기류'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ㄴ·ㄷ이다.
② X — ㄱ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ㄱ은 '기온·기습·기류'가 맞고, ㄹ은 '$75 \le DI < 80$일 때 50% 이상이 불쾌감을 호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ㄴ·ㄷ이다.
③ O — ㄴ은 열사병이 체온조절중추의 기능 장애로 발생한다는 설명이고, ㄷ은 실내와 실외의 쾌적기류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므로 ㄴ·ㄷ의 조합이 옳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70 \le DI < 75$에서는 약 10%가 불쾌감을 느끼며, '50%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은 $75 \le DI < 80$이다. 따라서 ㄹ 대신 ㄷ을 골라 ㄴ·ㄷ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복사열이 온열의 4대 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기후의 3대 요소와 혼동하게 한다. ㄹ에서는 불쾌지수 70대의 구간별 비율을 바꾸어 제시했는데, 50% 이상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구간은 70 이상이 아니라 75 이상 80 미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문장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기습·기류,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장애, 쾌적기류는 실내 0.2 ~ 0.3*m/sec*·실외 1.0*m/sec*, 불쾌지수 75 이상 80 미만은 50% 이상으로 연결한 뒤 옳은 문장만 조합한다.

암기 포인트

기후 3요소는 기온·기습·기류이고, 복사열을 더하면 온열 4요소이다. 불쾌지수는 70부터 약 10%, 75부터 50%, 80부터 거의 전부로 기억한다.

NoteBase

16.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나 위험의 인식과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유형 중 반동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②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것
③ 본능의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 에너지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
④ 금지된 충동을 억제하려고 그 반대의 경향을 강조해 스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을 제어하는 것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방어기제인 억제, 투사, 승화, 반동형성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나 충동을 감추기 위해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과도하게 나타내는 방어기제이다.
억제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눌러 두는 것이고, 투사는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승화는 본능적 충동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반동형성이 아니라 억제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눌러 두는 것'이다.
② X — '자신의 결점이나 행동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반동형성이 아니라 투사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③ X — '충동 에너지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반동형성이 아니라 승화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본능적 욕구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④ O —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그 충동과 반대되는 경향을 강조하는 것은 반동형성의 정확한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방어기제는 모두 불안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어 목적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④의 ‘반대의 경향을 강조’가 반동형성을 판별하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행동 방향을 확인한다. 의식적으로 눌러 두면 억제, 남에게 돌리면 투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으로 바꾸면 승화, 원래 충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반동형성이다.

암기 포인트

반동형성은 속마음과 반대로, 억제는 의식적으로 누르기, 투사는 남에게 돌리기, 승화는 사회적 가치로 바꾸기이다.

NoteBase

17. 귤릭(Gulick, Luther Halsey)의 보건행정 관리 요소 중 '조직(organiz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며, 좋은 근로조건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②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각종 명령을 발하는 행위이다.

③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공식적 권한의 구조를 설정하고 분업을 행하며, 각 직위의 직무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④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 또는 부서 간의 협의, 회의, 토의 등을 통하여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집단의 노력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ulick의 보건행정 관리 요소인 POSDCORB에서 조직화(organizing)의 의미를 다른 관리 기능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직화(organizing)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공식적 권한 구조를 세우고, 업무를 분업하며, 각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 관계를 정하는 기능이다.
인사(staffing)는 직원을 채용·훈련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기능이다.
지휘(directing)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기능이다.
조정(coordinating)은 구성원이나 부서의 활동을 서로 연결하여 행동의 통일을 이루는 기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직원의 채용·훈련과 근로조건 조성은 조직화가 아니라 인사(staffing)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조직화'와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인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며 좋은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기능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조직화가 아니라 지휘(directing)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조직화'와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지휘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각종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기능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공식적 권한 구조의 설정, 분업, 각 직위의 직무 내용 확정은 조직화(organizing)의 핵심 내용이므로 옳다.
④ X — 협의·회의·토의 등을 통해 조직원이나 부서의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조직화가 아니라 조정(coordinating)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조직화'와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조정은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원과 부서의 활동을 연결하고 행동의 통일을 이루는 기능이다'라고 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모든 선지가 넓은 의미의 조직 관리 활동처럼 보이지만, POSDCORB에서는 채용·훈련은 인사, 의사결정·명령은 지휘, 권한 구조·분업·직무 확정은 조직화, 부서 간 행동 통일은 조정으로 엄격히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동사를 찾는다. '채용·훈련'이면 인사, '결정·명령'이면 지휘, '권한 구조·분업·직무 확정'이면 조직화, '협의·통일'이면 조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직화 = 권한 구조 + 분업 + 직무 확정이다.

NoteBase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식품의 보존방법 (가)와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물리적 보존법으로 식품을 외부의 공기와 차단시켜 산화 또는 흡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공기 중에 방치되는 곡류가 습기를 흡수하지 않게 할 때 사용된다.
(나) 화학적 보존법으로 잼 등의 식품 제조에 사용되며 당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하는 저장방법이다.

	(가)	(나)		(가)	(나)
①	건조법	당장법	②	밀봉법	당장법
③	건조법	염장법	④	밀봉법	염장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식품을 외부 공기와 차단하는 밀봉법과, 당의 삼투압을 이용하는 당장법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밀봉법: 식품을 용기나 포장에 밀폐하여 외부 공기와 차단함으로써 산화와 수분의 출입을 막는 물리적 보존법이다.
당장법: 잼처럼 식품에 당을 많이 넣어 삼투압을 높이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줄이는 화학적 보존법이다.
건조법은 식품 자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염장법은 소금을 이용해 삼투압을 높이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건조법'이 틀렸다. (가)는 식품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부 공기와 차단하여 곡류의 흡습 등을 막는 방법이므로, 올바르게는 '(가) 밀봉법, (나) 당장법'이다.
② O — (가)는 공기와의 접촉 및 수분 출입을 차단하는 밀봉법이고, (나)는 잼 제조에서 당의 삼투압을 이용하는 당장법이므로 모두 옳게 짝지어졌다.
③ X — (가)의 '건조법'과 (나)의 '염장법'이 모두 틀렸다. (가)는 밀봉법이며, (나)는 소금이 아니라 당을 이용하므로 당장법이다. 올바르게는 '(가) 밀봉법, (나) 당장법'이다.
④ X — (가)의 '밀봉법'은 맞지만 (나)의 '염장법'이 틀렸다. 잼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당의 삼투압을 이용하는 당장법이므로, 올바르게는 '(가) 밀봉법, (나) 당장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습기’라는 표현만 보고 (가)를 수분 제거 방식인 건조법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가)의 핵심은 식품을 ‘외부의 공기와 차단’한다는 데 있으므로 밀봉법이다. 또한 삼투압을 이용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당장법과 염장법을 혼동하면 안 되며, 잼은 당을 사용하므로 당장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기 차단은 밀봉법, 식품 자체의 수분 제거는 건조법으로 판단한다. 삼투압 보존법은 사용하는 물질을 확인하여 당이면 당장법, 소금이면 염장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공기 차단은 밀봉, 잼의 당은 당장, 소금은 염장이다.

NoteBase

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보건 교육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면의 검토를 넓게 전개할 수 있다.
- 토의 초점이 어긋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① 상담 ② 역할극
③ 세미나 ④ 브레인스토밍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특징을 근거로 브레인스토밍을 다른 보건교육 방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레인스토밍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구성원들이 비판이나 평가를 미룬 채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도록 하는 집단 토의 기법이다. 자유로운 발상과 폭넓은 아이디어 탐색이 장점이지만, 토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가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문제 해결을 돕는 개별적 교육 방법이고, 역할극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역할을 연기하며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이며,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중심으로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의 대화를 통해 개인의 건강문제나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설명을 '상담'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브레인스토밍'이다.

② X
역할극은 참여자가 특정 인물의 역할을 맡아 상황을 연기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설명을 '역할극'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브레인스토밍'이다.

③ X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와 참가자 토의를 통해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집단교육 방법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설명을 '세미나'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브레인스토밍'이다.

④ O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특정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가 분산되어 토의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제시된 장단점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표현만 보고 세미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양산, 창의성 활용, 초점 분산 가능성이라는 묶음은 브레인스토밍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유로운 발상, 많은 아이디어, 비판 유보, 창의성, 초점 분산이라는 단서가 함께 나타나면 브레인스토밍으로 판단한다. 개인 문제에 대한 대화는 상담, 상황을 직접 연기하는 것은 역할극, 주제 발표와 심층 토의는 세미나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은 뒤로, 아이디어는 많이'이다.

NoteBase

20. 「모자보건법」상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영유아'란 출생 후 __(가)__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__(나)__ 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__(다)__ 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나)	(다)
①	3년	10월 10일	1년
②	3년	11월 19일	3년
③	6년	10월 10일	1년
④	6년	11월 19일	3년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연령, 임산부의 날, 난임의 기간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기준을 각각 정확히 구별하여 모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영유아 =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이다.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핵심 구분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이고, 난임의 기간 요건은 1년이다.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이다. 따라서 (가) 6년, (나) 10월 10일, (다) 1년의 조합이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0월 10일과 1년은 맞지만, 영유아는 출생 후 3년 미만이 아니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이다.
- 틀린 표현: (가) 3년
- 올바른 표현: (가) 6년

② X
- 세 항목이 모두 법정 기준과 다르다.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이고,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이며, 난임의 기간 요건은 1년이다.
- 틀린 표현: (가) 3년, (나) 11월 19일, (다) 3년
- 올바른 표현: (가) 6년, (나) 10월 10일, (다) 1년

③ O
- (가) 6년, (나) 10월 10일, (다) 1년이 모두 「모자보건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④ X
- 영유아의 6년은 맞지만, 임산부의 날과 난임의 기간 요건이 틀렸다.
- 틀린 표현: (나) 11월 19일, (다) 3년
- 올바른 표현: (나) 10월 10일, (다) 1년

오답 포인트

선지 ①·④처럼 세 숫자 중 일부만 맞는 조합을 고르면 틀린다. 특히 임산부의 날인 10월 10일과 다른 기념일 날짜를 혼동하거나, 난임의 기간 요건 1년을 3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합형 문제에서는 (가)~(다)를 따로 확정한 뒤 선지를 대조한다. 이 문항은 영유아 6년 미만,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난임 1년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영유아 6년 미만 ·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 난임 1년이다.

NoteBase